

뉴스레터

DKUMC



제5권 6호 2015년 7월 5일

MONTHLY NEWSLETTER OF DELAWARE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교회는 저의 행복입니다”



송종남 목사

7월 19일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지 36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생일을 맞으면서 교회와 제 인생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교회는 저의 ‘모든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목사라서가 아니라, 저는 늘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엔 교회에 봉사하러 가시는 어머니를 따라서 늘 교회 가서 살다시피 했고, 중고등부, 청년시절엔 교회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하는 활동처럼 재미있는 일이 없어서, 학교 가는 시간 말고는 거의 교회에서 시간을 다 보내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추억도, 친구도 모두 교회와 함께입니다. 교회는 곧 저의 집이었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거의 다 교회 친구들이니 다들 그렇게 교회가 집이요, 집이 곧 교회처럼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의 시간과 생각, 몸, 모든 life가 교회와 함께 움직이며 돌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떼어 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옛그제 어떤 목사님 은퇴감사회에 다녀오면서 생각해 보니, 저도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저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교회와 함께 풀타임으로 산 것이 벌써 30년이 되었던군요.

교회, 교회는 저의 인생과 단 한시도 떼어놓

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태어났고,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배웠고, 교회에서 일하고 밥을 먹으며, 또 언젠가는 교회에서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교회는 제 인생의 전부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너무나 좋습니다. 교회 마당에만 들어서면 벌써 마음이 푸근해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서면 마음이 가장 평온합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가장 편하고 좋습니다. 교회에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고, 교회에서 들이쉬는 숨은 공기의 맛이 다릅니다. 교회는 주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곧 주님이요, 주님의 품이요,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인생만 이렇게 교회와 함께 산 것이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닌 년 수가 어떠한, 주님을 믿고 난 후, 거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도 직장도 교회와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자나 깨나, 우리의 마음과 눈은 늘 교회를 향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분들은 옷을 살 때도 가장 먼저 ‘교회 갈 때 입을 옷’이라 명명하면서 사더군요.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것이 교회와 연결되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민자로 살면서 더더구나 교회는 우리의 산성이며, 방패며, 의지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그렇게 마냥 좋은 곳만은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사실 교회 울타리 밖에 있으면 받지 않아도 될 상처, 듣지 않아도 될 말들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그러나 저도 상처와 아픔은 사실 교회에서 받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도 깊고 아파서 주님을 떠날 수 없지만, 한때는 교회를 떠날까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한두번쯤은 다 해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상처와 아픔을 주고 받는 곳도 교회이지

담임목사 칼럼

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곳도 교회였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을 다른 곳에 가서 치유 받을 수 있다면 아마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디에서도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밖에 그 아픔을 알아주시고, 상처를 만져주시며, 호호 불어주시며,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 밖에 없기에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 없고, 주님을 떠날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애증의 관계’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사랑과 아픔이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니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데 아픔도 거기에서 맛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랑이 더 크고 강하기 때문에 아픔은 그 사랑의 품에서 삭히고, 잊히고, 치유되고 회복됨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저에게는 행복입니다. 100% 좋은 일만 있어서가 아니라,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러나 그렇더라도, 교회는 저에게 행복입니다. 성도님들은 저에게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부를 수 있고, 달려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사랑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델라웨어한인연합감리교회

36 YEARS *of*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

주화자 장로

창립 36주년을 맞이하는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를 되돌아보자니 많은 감회가 다가온다. 지난 시간들속에 함께 하였던 에베에셀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받은 많은 은혜 가운데 오늘 특별히 내가 감사의 고백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일대일 제자양육’과 ‘주일예배 중보기도’이다.

지금까지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고 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던 “제자화를 위한 성경공부” 시간이었던 것 같다. 1993년 많은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졌던 34주간의 이 제자훈련은 이후 6기까지 지속되었고, 결국 1998년 “제2단계 제자화를 위한 성경공부”로 이어졌다. 물론 그 외에 다양한 성경공부 모임도 있었지만, 나는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을 받은 이후 내가 깨달은 복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누군가와 꼭 나누고 싶은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1995년부터 해마다 만나게 된

영적 동반자들과 함께 말씀과 삶을 나누며 일대일 제자양육을 이어오다 보니 어느새 올 해로 20년이 되었다. 모두가 삶이 다르고 신앙의 모습도 달랐지만 함께 했던 시간들은 정말 진지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색이 바랜 교재에 빼곡히 적혀있는 함께했던 이름들을 헤아려보자니 68명이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불러 가르침(?)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작은 도구로 써 주심에 감사드린다. 사실 가르치기보다는 배우는 시간이었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 올 수 있었음이 축복이었다. 신앙의 스펀지 가운데 있던 그들이 지금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힘 있게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지켜보자니 감사와 더불어 흐뭇하기도 하고, 때로 부족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떠오르기도 한다. 앞으로도 계속 내 기력이 다하는 그 날까지 나는 이 일을 계속 하고 싶다. 그러기에 올해도 하나님이 불러 보내 주시는 새 동반자를 기대하며 기다린다.

또 하나의 감사고백은 2009년 9월에 시작한 “주일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다. 지금은 당연히 되어진 주일 1부 예배(2009년 12월 시작)의 필요성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러지는 주일예배의 중요성을 고대하며 시작한 주일 예배 전 중보기도 모임은 다소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매 주일 오전 10:30분이면 중보기도실(도서실)에 앉

아 주일 예배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도 혼자와의 씨름처럼 다가올 때도 많았다. 하지만 다행이도 그럴 때 마다 몇몇 기도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기도의 불씨를 지펴, 계속 이어가게 하셨으니 이 또한 무한 감사한 일이다. 이제는 기도의 젊음을 보내 주셔서 중보기도의 자리를 든든하게 이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우리 교회의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볼 때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아름답게 이뤄 가셨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제 더욱 힘차게 이 지역과 사회, 그리고 열방을 위해 이루어 가야 할 우리들의 사명이 있기에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를 위한 거룩한 부담감과 함께 간절한 기도를 올리게 된다. 그러기에 송종남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다시 시작되어진 우리 교회의 “일대일 제자양육”이 힘차게 정진해 가길 소원해 본다. 또한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 드려져야 할 주일예배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 모임이 많은 기도의 사람들로 더욱 뜨거워지길 바란다. 진정한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일대일로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복음의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태어나길 간절히 기도드린다.

'사랑하는 우리교회, 늘 그립고 사모하는 우리교회'

이호숙 집사

'이번 주는 내가 교회에 가는 차례지?'

'아니, 내가 갈 차례 아니야? 내가 갈 거야 오늘이 아버지 주일인데 당연히 아버지인 내가 가야지.' 아버지 날이란 말에 내가 졌다. 이번 주일 예배드리러 가는 것은 신랑이 승리했다.

매 주일날만 되면 벌어지는 우리 집의 풍경이다. 주일날은 쉬고 마음껏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주일날 내 맘대로 쉴 수 없는 곳에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 우리는 교회 가는 순번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한판 승부가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끼리 정한 룰은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주일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준비하는 사람이 교회에 가는 것으로 정했다. 우리 가정의 사정을 아

시는 몇몇 분은 우리를 위해 이런저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둘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해서 이렇게 매주 교대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이런 사정 때문인지 우리는 늘 교회가 그립고 예배를 사모하며 산다. 내가 교회에 가는 순서가 되는 주일이면 집에서부터 벌써 마음이 설레이고 그렇게 들뜰 수가 없다. 교회가 가까워지면 자동차 바퀴가 두배로 빨리 돌아간다. 마음은 벌써 성전 안에 가 있다. 이렇게 늘 교회를 그리워하며살다보니 예배시간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른다. 말씀이 속속 들어오고, 목청 높여 찬양으로 마음껏 주님을 높여드린다. 바쁘게, 무사히 한 주를 지내고 예배당에 와 앉은 나를 주님이 포근히 감싸주심을 늘 느낀다.

예배 중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고백하고, 목사님의 말씀에 또 새로운 은혜를 받고, 교우들과의 친교시간으로 활력을 얻고는 다시 한 주를 시작할 새 힘을 얻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 일주일만의 휴식과 주님의 말씀으로 영양보충,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또 한 주를 버틸 수 있을까, 예배가 끝나고 친교가 끝나도 쉽게 교회에서 자리를 뜨지 못할 때가 많다. 왜냐하면 어떻게 온 교회인데 금방 일어설 수 있겠는가?

교회와 집이 멀기도 하고, 또 주일날 맘대로 가게를 닫을 수 없는 우리 부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교회 식구들이 늘 그립다. 마치 고향 집이 그립듯이. 마음껏 교회에 올수 있고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복 받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늘 한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늘 기도하며 소망한다. 언젠가는 우리 둘이 나란히 손잡고 함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수 있는 날이 반듯이 오기를 기도한다.

"우리교회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 늘 그립고 목이 마릅니다. 사모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참 좋은 우리 교회

왕영두 원로장로

창립 34주년 때 제가 ‘참 좋은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뉴스레터에 올린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창립 36주년을 맞아 펴내는 이번 뉴스레터의 주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라고 하니, 그 때의 제목을 조금 확장하여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Hockessin의 높은 언덕에 자리 잡은 우리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겨울에는 눈부신 설경을 선사합니다. 봄에는 각종 아름다운 꽃들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여름에는 우거진 녹음으로 우리를 반겨줍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병풍처럼 펼쳐져 교회를 들어서는 모든 발길에 아늑함을 안겨줍니다.

팔각형의 성전은 아담하고 포근한 분위기가 예배자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특히 강대상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지점에 절묘하게 위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979년 우리 교회의 창립 이래 19년 동안 미국 교회에서 셋방살이를 한 뒤에 이렇게 귀한 성전을 주셨으니,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성전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좋은 성도들이 있고 그들의 신앙이 성숙되어 가고 있음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문턱은 날로 낮아지고 있으며, 교인들 사이에 약간의 불화가 있을 때도 있지만 끝내는 사랑으로 서로 감싸주는 것을 봅니다. 예배는 또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11시 예

배에 시간 맞춰 나오기를 간곡히 부탁해도 교인들이 제대로 따르지 않았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성도들이 시간 전에 성전에 옵니다. 그러면 찬양팀의 인도에 따라 모두의 마음이 예배를 위해 준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36세의 젊은 교회인 만큼 건강하고 희망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인들의 평균연령도 젊은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교인 주소를 보면, 135개 가족 중 60세 이상은 46%이며, 65세 이상은 35% 정도가 됩니다. 물론 유동 성도가 있어서, 어떤 분의 말씀처럼 60대 이상의 비율이 60%라고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근래에 젊은 신도들이 많이 들어와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교회의 앞날은 희망적입니다. 영어예배는 젊은 교우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18세대 중 젊은 신도가 주축을 이루는데, 그들이 교회 내에서 섬기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의 노령화에 대한 걱정은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그런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 예로, 이 지역의 연세 드신 분들이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시고 꾸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며 목장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을 보면, 젊은 교우들을 포함한 모두에게 은혜가 됩니다.

목장 얘기가 나왔으니 이에 대해서도 감사한 말씀을 쓰고 싶습니다. 송종남 목사님께서 오셔서 속회를 목장으로 전환시키셨지요. 속원들도 새로운 목장 시스템에서 ‘목원’들이 되었지요. 이제 우리 교회의 목장 활동은 전반적으로 자리가 잡히고 있습니다. 목장들은 각각이 ‘작은 교회’라고 할 만큼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지상명령인 선교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미국 내는 물론이고, 동남아시아 및 중·남미의 여러 나라에 매년 의교선교팀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 지역에서는 신학교를 세우는 데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적인 선교헌금도 하지만, 교회 차원의 지원도 다양합니다. 연초에 책정하는 선교예산뿐만 아니라, 각 목장에서 나오는 헌금, 매월 초에 드리는 성만찬 헌금, Korean Food Festival의 수익금, 그리고 선교걷기에서 나오는 기부금 등이 있지요.

저는 교회 방문객과 얘기할 일이 있으면 항상 우리 교회의 자랑을 합니다. 이 지역 한인교회 중 제일 크고 아름다우며, 교인도 좋고,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로우며, 교회학교 프로그램이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선전합니다. 특히 여름 성경학교는 다른 교회 어린이들도 많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가 많고, 10월에 열리는 Korean Food Festival은 이제 하나의 지역행사가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우리 교회가 참 좋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습니다. 이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의 생활은 단조로웠을 테고, 성도간의 아름다운 교제도 없었겠지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십자가 밑에서 주님께 간구할 공동장소도 없었을 것이고, 신앙의 동반자인 목사님과 성도들이 해주시는 중보기도의 혜택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 그리고 영적 지도자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QT 나눔

시편 126편 6절을 묵상

“울며 씨를 뿌려라”

박해주 집사

6월 21일 주일 오후,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와 오늘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정리해보다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이 자꾸 머리에서 맴돌았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기회를 잘 붙들고, 시간을 잘 쓰고 있는지,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 무엇이 선한 일이고 또 내가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자, 순간 ‘울며 씨를 뿌려라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는 시편 126편6절 말씀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라는 마태복음5장4절 말씀이 떠올랐다.

마치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고 있잖니? 내가 너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고 있잖니?’라고 하시며 ‘왜 울며 기도하지 않느냐, 애통함이 없을 만큼 지금 너와 네 가족과 네가 사는 세상은 평안하냐?’고 연이어 묻고 계시는 것 같았다.

그리고 보니 언제부턴가 기도보단 염려와 근심에, 평안보단 불안 초조함이 내마음을 가득 채웠고, 그나마 마음에 부담을 덜기위해 형식적으로 앞드리고 일어난 날들이 더 많아지고 있었다.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적이 언제였던가? 그나마 가뭄에 콩 나듯 주님을 부르며 울때면 나의 욕심과 방법과 고집을 내려놓기 싫어 떼쓰는 울음이 아니었는지... 내안에 주님의 마음과 눈물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었던 것이다. 평안한 상태가 아닌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을 말하고 은혜안에 있으니 ‘괜찮다 괜찮다’하고 있는 내 모습이 마치 거짓선지자(렘 6:14)와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나에게 주님은 ‘다윗과 같이 자복하고 통회하는 회개의 눈물 한 방울이라도 네게 있느냐? 예레미야 같이 날마다 감당 못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

을 보고 너는 왜 나의 마음을 가지고 울지 못하느냐? 베드로와 같이 사랑하는 주님을 계속 부인하는 너 자신에 대해 아파하는 통곡이 있느냐? 날마다 주여 주여 부르는 너는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도적같이 이를 그날에 구원받지 못한 부모형제를 위해 흘려야 하는 너의 갈급한 눈물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계속 물으시는 것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도우시고 함께하시는 주님께서 ‘다른 건 할 수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니?’라고 내게 간절히 부탁하시는 것만 같았다.

기쁨의 단을 거두며 웃을 그 날,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메말라 버린 생명 없는 나의 기도생활에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믿음의 눈물을 뿌려야겠다.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길 원하네

주여 나를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추천 도서

“완전한 치유 완전한 건강”

저자: 배성호 목사



“의사목사가 전하는 건강과 치유의 메세지”

사람들은 모두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지금은 100세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가 모두의 지대한 관심사이다. 배성호 목사님은 평생 신경과 전문의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체에 대한 이해가 누구보다 깊다. 그런데 그가 의사의 길을 가면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었다. 그는 의사이며, 목사이다. 의사로서 사람의 육신을 고치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의사 목사'로서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까지 치유하는 전인적인 치유를 제시한다.

의사로서 해박한 지식과 경험으로 일해온 배성호 목사님이 지금은 '의사 목사'로서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고 어루만지며,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게 치유받는 것까지 관심하고 있다.

이 책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현대인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건강이면 치유인지, 또 오래 사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말해 주고 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고, 오래,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한다.

(추천글: 송종남 목사)



DATE: June 15-19

Staff Interview

What were you most looking forward to during the VBS?

I was most looking forward to praising God and helping others praise God this VBS. —Robert Oratorio

Seeing the children enjoy themselves and learn more about God. —Ezra Lee

Dancing with the kids & watching them get excited. —Ellen Yun

I was looking forward to seeing God work through the kids and through us too. —Faith Kim

Interacting with the children and watching them learn, play, and dance!! —Sarah Jang

Watching the children have fun while learning about the Lord and His love for us. —Samuel Song

What was the best part about preparing for the VBS?

Painting and having fun as well. —Lauren Seo

The best part of preparing for VBS was watching how hard everyone was working and the dedication that was going into all of the preparation. I also loved learning the body worship dances. —Joy Kim

I enjoyed learning dance moves for VBS but overall I liked the fellowship we got to have these past few days. —Rachell Hong



작년부터 VBS Bible Story Team을 맡게 되어서 올해도 어린이들과 함께 즐거운 여름성경학교를 보냈습니다. Kelly Suh 집사님과 Anna Kim전도사님은 이미 작년에 캐스팅 되어있었지만, 나머지 김남주, 이은미, 이정례 집사님은 파킹랏 캐스팅(교회 파킹랏에 걸어오는 들어오는 것을 강권하여 데려옴)으로 함께 했는데, 연기, 의상, 무대장식,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 모두 아주 멋지게 해주셔서 VBS를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주고자하는 메시지를 잘 전달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우리 팀 모두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걷고,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무대 장치는 윤은남 집사님이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함께 한 모든 분들께 감사. 내년을 위해 지금 선착순 캐스팅하고 있습니다. —송은순



텔라웨어한인감리교회 소식지 (2015년 7월호)



By now, everyone knows the benefits of VBS for our children. Although I have been involved with VBS since its inception, it is only this year that I discovered the benefits and fun for the adults. I was part of the Bible story team comprising of 7 “respectable” and “serious” Christian women in our 40’s and 50’s. Except for 사모님, our leader, producer, and director, the rest of us walked in “just to help.” Our task was to present 5 Bible stories. Perhaps it was because we were presenting the stories to children as young as 5 year olds, but we soon found ourselves brainstorming about making the story come alive through acting and decorations.

How do we make the story of breaking through a roof and dropping a sick friend come alive in a small classroom? (For those who did not see the play, you missed a great miracle! The children still believes that the sick friends fell from the ceiling.) Such was the challenge that demanded our creativity and resourcefulness. Becoming the old David about to pass the baton to his son or the blind and desperate Bartimaeus calling out to Jesus quickly removed our respectable facade and unleashed our artistic souls! Before we know it, we were laughing, debating, creating, and living the lives of the giants in the Bible. —김소영 전도사

여름방학 이야기

장지선 집사

여름방학이 시작될과 동시에, 저희 집에는 3개월 동안의 긴 전쟁이 찾아옵니다. 거의 모든 이민자의 생활이 그렇듯이, 남편과 내가 둘 다 일을 하기 때문에 방학이 되면 이런저런 궁리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방학동안 아이들끼리 집에 둘 수 없어서 어디에다 맡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집의 여름은 여기저기 썸머 캠프를 알아 보며 시작이 됩니다. 기나긴 여름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할지, 썸머 캠프는 어느 곳이 더 잘 하는지,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 기억에 남는 멋진 여름 방학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며 방학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아이들의 방학을 챙길때면 늘 저의 어릴 적 여름방학 생각이 납니다.

저의 어릴 적 여름방학은 이랬습니다. 방학을 손꼽아 기다리며 방학식 날 탐구생활을 받아들이고 불루랄라 신이 나서 집으로 뛰어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계획표도 만들고, 독서도 하고, 교육방송도 들으며 ‘방학숙제는 일찍 다 해 놓으리라’ 다짐합니다. 그런데 방학을 한지 2주째 쯤 되면 그렇게 꼼꼼히 만든 계획표는 벽에 외롭게 붙어 있는데 눈길 한번 안주고, 저는 늦잠도 실컷 자고, 보고 싶은 방송도 마음껏 보고...하기 중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만끽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 모습을 엄

마가 그냥 보고만 계실리 없었지요. 그때부터 엄마의 무한 잔소리는 시작됩니다. “무슨 놈의 잠을 그렇게 늦게까지 자느냐, 방 청소 좀해라, 그게 방이나, 쓰레기 통이나, 방학숙제는 언제 하려고 그러냐? 미리 미리하면 어디가 텅 나냐?...” 등등 어떻게 그렇게 제가 듣기 싫은 소리만 골라서 하시는지, 그런 엄마가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그렇게 방이 좁을 정도로 뒹굴며 엄마와 싸우며 방학한지 3주째가 되면...웬걸, 이젠 심심해서 몸이 비비 꼬이면서 친구들과 선생님이 슬슬 보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빈둥대다보니 ‘아니 벌써 개학 1주일 전?’ 밀린 숙제하랴, 일기는 써야겠는데, 날씨가 비가 왔는지 흐렸는지, 개였는지..., 도통 알 수 없고... 날씨 물어보러 친구집으로 왔다갔다 ... 호떡집에 불이 난 듯이,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런 저를 보는 엄마는 ‘그러게 미리 미리 하지, 왜 그렇게 벼락치기로 하느냐’며 또 늦잔소리까지 죽 늘어놓으셨습니다.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잔소리만 계속하는 엄마가 밉기도 하고 야속하게 느껴져서 나는 나중에 크면 절대 잔소리하는 엄마가 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흘렀습니다. 저도 결혼을 했고, 두 아이의 엄마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저는 압니다. 그리고 내 엄마가 이해됩니다. ‘그때 엄마가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하셨는지’ 말입니다. 엄마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내가 엄마가 되면 ‘나는 우리엄마처럼 잔소리하는 엄마가 되지 않으리라’ 다짐했었는데, 웬걸... 지금의 저를 보

니 옛날 내 엄마와 똑 같은 엄마가 돼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압니다. 그때 엄마의 그 잔소리 덕분에 오늘 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잔소리는 그냥 잔소리가 아니고 저에게 살이 되고 뼈가 되는 약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전 그때의 엄마의 잔소리가 그리워지는 걸 보니 저도 슬슬 나이를 먹어가나 봅니다.

다시 여름 방학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다시 뒹달을 하고 잔소리를 합니다. 아이들이 빨리빨리 안 움직일 땐 얼굴이 찌그러지고, 언성도 높아지고 짜증도 섞여집니다. 그러나 우리아이들이 언젠가는 저의 이런 잔소리가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 양약이었다고 기억하는 날이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엄마의 그 많은 잔소리가 그리워지고 그 잔소리의 참 의미를 알아가듯이 말입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도 하기 중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려니 아침마다 우리 집의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런 전쟁 속에서 우리아이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고, 밝고, 맑게 자랄 것이라 저는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아이들에게 양약이 되는 잔소리를 더 많이 할 것 같고, 열심히 일하는 슈퍼맘이 되어서 이번 여름도 다른 어떤 방학보다도 우리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2015년 6월 포토갤러리



과라니선교 2015 (6/1~6/10)



교인 탐방

복음이 짙어가는 요즈음, 이번달 뉴스레터에서는 지난 봄에 우리교회로 오시게된 윤성현, 이정례 집사님 가정을 만나보겠습니다. 하나님안에 우연이란 없는 법... 세상의 많고 많은 사람들, 교회들 중에 윤집사님 가정과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현, 정례, 큰아들 상진 그리고 둘째아들 도진이네 가족입니다. 지난 3월 남편과 저는 남편의 연구년을 맞아 둘째인 도진이란 데리고 먼저 들어와 델라웨어 Newark에 자리를 잡았고, 바로 몇 일 전인 6월 21일 큰아들이 여름방학과 함께 입국했습니다.

남편이 강의하고 있는 백석대학교는 기독교대학이라 독실한 동료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데, 지난해 김대통령권사님의 초청으로 이 곳에서 연구년을 보내셨던 고경일 교수님을 통해 델라웨어를 알게됐고, 역시 김대통령권사님 덕분에 저희도 이 곳으로 와서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와 귀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비즈니스나 학회로, 아이들은 이런저런 대회나 캠프로 미국이 낯설지 않지만, 저는 미국 방문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연구년을 앞두고 남편이 미국에

함께 나가자고 했을 때 저는 사실 내키지 않았습니다. 둘째아이의 학년도 은근히 부담스러웠으며,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하던 제 일도 정리하고 미국에 들어가 낯선 환경에 적응해서, 살 만해지면 다시 집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할 것을 생각하면 ‘왜 꼭 연구년을 미국으로 다 함께 가야 하는가?’를 남편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내에서 연구년을 보내면 안 되겠느냐는 제안부터 혼자 지내면 방학 때 잠깐 미국에 들어 가겠다는 등등의 저의 제안에 남편은 초지일관 아이들 다 커 버리기 전에 더 넓은 곳에서 함께 생활하며 견문도 넓히고 가족이 여유있게 함께 할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3월 초... 아직은 겨울의 한기가 남아있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델라웨어에 도착하면서 저는 기대나 설렘보다는 이런 저런 걱정이나 불평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주일날조차도 각자 스케줄에 맞춰 가족이 따로따로 흩어져 예배드릴 때가 많고 함께 식탁에 둘러 앉을 기회는 말 그대로 가뭄에 콩나듯 했던 우리 가족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3년이 넘는 기간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하며 얼마나 준비하고 아이들을 양육하였는지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얼마 전 교회의 여름성경학교 VBS를 곁에서 가까이 지켜보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율동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이들과 곁에서 준비하며 섬기는 여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미국 델라웨어한인교회로 연수



를 보내신 듯한 기분이 들어 혼자 미소를 지어 보았습니다.

이제 큰 아이까지 함께 있게 되면서 우리 가족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족이 함께 말씀을 보고 찬양하는 가운데 가족 모두 주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 곳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어떤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주께 의지하며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음은 우리 뒤에서 늘 깨어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며 그 중에서도 부모님의 기도가 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남편과 저도 아이들에게 이러한 기도하는 부모로서의 유산을 남겨주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곳에서의 시간이 그동안 기도에 빛진 자로서 그 빛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중보기도의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뜻하게 환영해주시고, 이러한 소망의 불씨를 지킬 수 있도록 편만해 주시는 목사님과 부목사님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가정과 섬기는 성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목장식구들께 감사드립니다. (윤성현, 정례, 상진, 도진)

2015 7월 일정

- 7월 3일(금) - 4일(토) 성가대 세미나
- 7월 5일(주일) 성만찬, 목장 지도자훈련
- 7월 12일(주일) 전교인 대청소
- 7월 19일(주일) 36주년 창립기념예배

JULY

- 7월 19일(주일) - 25일(토) 청소년부 나바호 선교
- 7월 20일(월) Meals on Wheels 봉사
- 7월 29일(수) 재정위원회 모임